종교교육학연구 제7권. pp.99-10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신앙자유 운동에 나타난 개혁사상"에 대한 논평

이 원 호
(부산대학교)

주제 〈근대에 있어서 한국 종교의 개혁사상〉에서 최동희 교수는 동학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동학이 사교로 규정되고 관변측과 기득권층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제과정에서 동학이 제기했던 논리를 통하여 후일 흔히 동학 곧 혁명이 아닌 온건하고 주체적이며 전통적 제가치관을 여과·수렴하면서도 그나름의 근대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개혁 이상과 구조가 동학사의 몇가지 사실에서 그 의지가 함의되고 있음을 추출· 정리하였다.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그것이 단순한 종교영역에 머물지 않고 봉건세력의 붕괴와 근대화를 촉진시킨 사회변혁의 유발 동기라는 면에서 민중의 자생적 운동인 반봉건·반침략 이데올로기를 창출시켰으며 마침내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도 있다.

따라서 동학연구자간에도 동학과 민족운동과의 관련성만을 부각시켜 농민봉기를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에 전적으로 귀결시키는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민봉기와 동학은 무관하다는 관점을 들기도 하나 이는 동학사상의 성격과 그것이 민족운동과의 관련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연유하였음을 반론하기도 한다.

동학 즉 천도교사상과 자기 전개는 그것이 단순한 민간종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한민족의 근대적 내셔널리즘 운동 그것이 농민전쟁의 사상적 추진력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개혁차원이 아닌 혁명적 양상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으나 동학은 흔히 난세에 보이는 서구의 종말론, 천년왕국도래설이나 동양의 미륵강림 등의 신인출현 형태에서 보인 기복 및 말세극복의 신흥종교의 형태와는 사뭇 다른 자기논리 위에 전개되었음이다. 먼저 최재우의 '보국안민'사상으로서의 동학의 자기확립을 들 수 있다. 이는 결코 형식상의 명분론에 머물지 않는 동학이 지닌 제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국가주의 지향인 대외적 위기에 대한 자주독립에의 선언이자 대내적으로는 반봉건 즉 기존 신분질서에의 저항이자 일반민중 곧 농민의 정치주체화에의 지향을 표방하였음이다.

특히 체제교학이었던 전통 성리학에의 도전인 유교윤리의 현실적 타락요인을 유교교리 그 자체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유교의 인의예지·삼강오륜의 타락에는 이를 예방할 수단을 무엇하나 갖지 못함에서 유교 및 유자의 부패요인을 유교의 내재적 결함에서 찾은 것은 동학의 유학에 대한 본질적 대항이었고 그것은 곧 체제교학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권위에의 부정이자 순교를 각오한 도전이었다.

체제교학의 부정에 머물지 않고 천운순환론에 터한 현실부정은 '후천개벽' 사상 곧 지상천국은 동학이 지배하는 지상'신선'으로 '선천'의 부정에 의한 인간의 존재형식을 문제삼는 계통적 신분질서의 거부이자 이는 나아가 '인내천'이라는 인간본질론에의 자기정리가 다듬어져 나갈 수 있었다.

1980년대에서 일제치하까지의 동학=천도교의 사상적 성격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동학은 조선왕조 말기인 대·내외적인 혼란과 해체가 가속화된 시기에 즈음한 민족적 위기, 봉건권력층의 부패타락에 의한 사회병폐의 극복을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주'로 표방되는 인간각성속에 억조창생의 '동귀일체'로 귀결시킨 반침략적인 민족주의와 반봉건인 민중적 관점에 터한 이념이었다.

둘째, 반침략·반봉건이라는 현실비판이면서 말기적인 현실지양이라는 토양 위에 도출된 신사회실현 곧 후천개벽(지상천국) 기약이라는 새로운 전망의 제시로서 자칫 관념적 환상성이 깃들기 쉬운 동학의 그 기저가 결국 도덕주의에 터한 교화의 원리로 자리하면서 혁명의 원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셋째, 1900년대 이후 천도교는 개화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교리의 본질면에서 비폭력주의가 견지되고 있으며 '갑오농민전쟁'과 3.1운동과의 관련에서도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음은 동학·천도교가 지닌 혁명성보다 그 개혁성에서 그 풀이가 찾아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